



통일한국의 자산, 탈북청소년의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2013.10.15(화)

■ 목 차 ■

1. 들어가며	1
2. 탈북청소년 대상 교육지원 정책 현황	4
1) 국내 탈북청소년 현황 일반	4
2) 탈북청소년 학습능력 실태조사 결과	12
① 국내 거주 탈북청소년의 가족 유형	12
② 친한 친구 여부 및 상담자 유형	13
③ 교육 및 학교생활	16
3)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	18
①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하늘꿈학교’ 현장 방문 결과	22
② ‘방과후 공부방’ 사업 지원의 문제점	25
3. 탈북청소년 교육 정책에 대한 정부·대안 교육기관의 견해	29
1)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부처별 중점 검토 사항	29
2) 대안 교육기관의 견해	31
4.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33
※ 별첨자료	36

1. 들어가며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약 2만 5천여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탄압과 굶주림을 피해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향후 한반도의 평화통일 과정에서 첨병 역할을 수행할 존재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해 나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하는 단초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탈북민의 40.8%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우리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한 채 궁핍한 생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비율인 2.7%와 비교할 경우 15배가 넘는 비율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원활한 국내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정부 지원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전반적인 지원수준을 늘려감과 동시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방안으로서 ‘탈북청소년의 학력 증진’에 특히 주목하였다. 2만 5천여명의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만 19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청소년의 총 수는 2,254명(8.8%)인 것으로

집계된다. 탈북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히 정착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학력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업부진 때문이다. 다른 사회체제와 가치체계 하에서 살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똑같은 언어이면서도 생경한 의미의 단어를 접할 수 밖에 없는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교육에 원활히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들이 성장하여 과연 통일의 역군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전에 이 사회의 문제 계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동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이러한 탈북청소년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통일부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방과후 공부방 운영 ▲무연고 탈북청소년 그룹홈 지원 ▲영어화상교육 무료 지원 ▲학습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업들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소수 학생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게 운영되는 등 곳곳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드러난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30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EBS와 ‘탈북청소년 학력신장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탈북청소년 EBS 교재지원 사업(2013.03.14.), 탈북청소년 학력증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2013.06.10.),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하늘꿈학교’ 현장 방문(2013.09.23.),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2013.09.23.), 탈북청소년 학력증진 후속 정책간담회 개최 (2013.09.30.) 등을 실행해 오고 있다.¹⁾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해당 부처인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2013년 정기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점검하였다.

본 정책 자료집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현재까지 논의된 정책 과제들을 정리하면서 탈북청소년의 실질적인 학력증진을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을 점검하고 모색하기 위해 발간하게 되었다.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실현하여 장래 건강한 통일세대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정책 제언이다.²⁾

본 자료집에서는 탈북청소년 대상 현행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대안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탈북청소년의 실질적인 학력증진을 이끌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모색하면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해당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 자료집 하단의 「별첨 자료」로 첨부한다.

2) 본 정책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의 출처는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한국 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특임센터·교육부 등의 것임을 밝힌다.

2. 탈북청소년 대상 교육지원 정책 현황

1) 국내 탈북청소년 현황 일반

201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감소 추세의 영향으로 탈북청소년 역시 동년을 기준으로 입국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6 ~ 20세 사이의 탈북자를 탈북청소년으로 분류³⁾하여 입국인원을 분석할 경우 통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2012년까지 총 3,823명의 탈북청소년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탈북자(2012년 기준) 23,728명 가운데 16.1%를 차지하는 수치로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상적인 탈북청소년의 개념에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록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통일부에서는 교육지원의 혜택에 있어 탈북청소년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다. 본 정책 자료집에서는 통일부의 정책 기조와 동일한 방향에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탈북청소년 개념에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탈북자 개인의 학력 수준, 북한 내 이수 학력, 입국 이후 진학하게 되는 교육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탈북 청소년의 연령대를 정립해야하나, 이 경우 30대 중반에 이르는 탈북자의 연령대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학력체계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6 ~ 20세로 탈북청소년을 분류하였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포함한 연도별 전체 탈북민 및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연도 대상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전체 (입국자수)	71	148	312	586	1,141	1,282	1,898	1,382	2,026	2,551	2,801	2,914	2,401	2,706	1,509	23,728
6~20세 (입국자수)	12	22	60	124	211	220	331	224	336	366	378	464	321	501	253	3,823

* 자료출처 : 통일부('12년 기준)

국내에 입국한 이후 탈북청소년들은 하나원 내에서 3개월 간 기초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이때 초등반(6 ~ 13세)의 경우 하나원에서 지정한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게 되고, 청소년반(14 ~ 19세)의 경우 통일부에서 관할하는 '하나들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국내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동일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북청소년의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면서 맞춤형인 기초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해당 교육 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탈북청소년은 본인의 학력수준에 부합하는 학력인증을 받게 되고, 하나원 퇴소 이후 이를 기준으로 거주지 내 일반학교 및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추산한 통계에 따르면, 일반

학교 및 대안 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총수는 2,254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서두에 통일부에서 통계한 6 ~ 20세 탈북청소년 3,823명과 인원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기준이 8세인 점 ▲일반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인원이 있는 점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고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인원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학교 급별·기관별 탈북청소년의 재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학교 기관 별 탈북청소년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초·중등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13. 4)	600	559	229	249	192	193	232	2,254
	1,159		478		385			
	2,022							

* 자료출처 : 교육부('13.4월 기준)

탈북청소년이 재학 중인 대안 교육시설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0조3(대안학교)4)과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거하여 설립된 교육시설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정규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성화형 대안학교’ (인가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되 정규학력 인정은 받지 못하는 ‘위탁형 대안학교’(미인가 대안학교)로 나누어진다. 현재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는 인가 대안학교 1개소와 미인가 대안학교 7개소를 합한 총 8개소가 있는데, 전체 교육기관 내 탈북청소년 2,254명 가운데 10.3%인 232명이 이들 대안학교에서 재학 중이다.

[표3]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학교 현황

(단위 : 명)

번호	학교명	소재지	전담 교사	학생 수
1	두리하나국제학교	서울 서초구	6	24
2	우리들학교	서울 관악구	4	21
3	여명학교 (인가 대안학교)	서울 중구	16	57
4	사단법인 여명	서울 중구	17	18
5	하늘꿈학교	서울 송파구	9	55
6	드림학교	충남 천안	9	23
7	한꿈 학교	경기 의정부	9	30
8	한울 학교	경기 남양주	6	19
합 계			45	232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일반 정규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공부방’에서 별도의 교육지원을 받게 된다. ‘방과후 공부방’에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거나 편부모 가정, 혼자서 생활하는 무연고 탈북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규 교육과정 이후 시간에 학생들의 학습교육 지원 및 지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관할하는 ‘방과후 공부방’은 전국에 2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총 377명(전체 학생 2,254명 중 16.7%)의 탈북청소년이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표4] 탈북청소년 이용 ‘방과후 공부방’ 현황

(단위 : 명)

구분	단체명	소재지	참여 탈북 학생 수
1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강서구	36
2	겨레얼학교	서울 양천구	30
3	느헤미야코리아	서울 서초구	33
4	반석학교	서울 강남구	9
5	북한이탈주민대전광역시연합회	대전 유성구	8
6	금강학교	서울 서초구	15
7	성비전교회	평택 비전동	13
8	에덴가족복지센터	수원 팔달구	10
9	자유탈북민협회	서울 강남구	16
10	자유터학교	서울 동작구	15
1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 북구	13
12	한누리학교	서울 양천구	30
13	한민족학교	서울 영등포구	13

14	새맘길심리치료센터	전남 여수시	15
15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경기도 부천시	14
16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12
17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경기 광명시	12
18	하늘둥지 지역아동센터	인천 남동구	10
19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부산 해운대구	12
20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부산 해운대구	13
21	창원 YMCA	경남 창원시	15
22	대전생명종합사회복지관	대전 동구	9
23	전주YWCA	전주 완산구	18
24	청주YMCA	청주 흥덕구	6
합 계			377

지역별로 서울 내 9개소, 경기 지역 4개소 등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는데 미시행 지역으로는 강원·충남·전남·제주 지역이 해당한다. 특정 지역에서 ‘방과후 공부방’을 미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❶ 권역 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청소년 수가 적거나 ❷ 위탁 교육의 사업 신청을 하는 지원단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심화되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따르면 ‘방과후 공부방’이 거주지와 너무 떨어져 참여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탈북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지역별 탈북청소년 ‘방과후 공부방’ 현황(2013)

(단위 : 개소)

총합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	부산	경상	제주
24	9	4	1	-	3	2	1	2	2	-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는 탈북청소년의 성별·출생지별·
 학습과정별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표6] ‘방과후 공부방’ 이용 탈북청소년 세부 구분

(단위 : 명)

번호	학교명	계	성별		출생지별		학습과정별			
			남	녀	북한	제3국	초	중	고	기타
1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36	25	11	28	8	22	8	6	-
2	겨레얼학교	30	18	12	7	23	21	9	-	-
3	느헤미야코리아	33	13	20	32	1	-	2	4	27
4	반석학교	9	3	6	9	-	-	-	1	8
5	북한이탈주민 대전광역시연합회	8	6	2	1	7	7	-	-	1
6	금강학교	15	6	9	4	11	13	-	-	-
7	성비전교회	13	4	9	6	7	7	5	1	-
8	에덴가족복지센터	10	5	5	2	8	4	1	-	5
9	자유탈북민협회	16	15	1	10	6	5	6	5	-
10	자유터학교	15	5	10	15	-	-	-	-	15
1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13	8	5	5	8	8	4	1	-
12	한누리학교	30	14	16	21	9	15	6	9	-
13	한민족학교	13	6	7	9	4	7	5	1	-
14	새맘길심리치료센터	15	8	7	9	6	10	1	-	4

15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14	4	10	4	10	9	4	-	1
16	북한이주민지원센터	12	6	6	3	9	10	2	-	-
17	하안종합사회복지관	12	7	5	5	7	10	2	-	-
18	하늘등지 지역아동센터	10	3	7	2	8	7	1	2	-
19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12	6	6	5	7	6	3	2	1
20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13	6	7	10	3	7	4	-	2
21	창원 YMCA	15	4	11	6	9	14	1	-	-
22	대전생명종합사회복지관	9	6	3	4	5	5	-	3	1
23	전주YWCA	18	10	8	12	6	6	1	5	6
24	청주YMCA	6	3	3	1	5	5	1	-	-
합 계		377	191	186	210	167	198	66	40	71

‘방과후 공부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선발된 위탁 기관들에서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 청소년을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국·영·수 중심의 정규학습 과정 지원 및 자율학습, 급식지원, 나이트 케어 등의 공통교육 과정과 ▲심리정서 안정, 한문교실, 미술·음악 교육 등 기관에서 선별적·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특성화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⁵⁾

5) 탈북청소년 재학 ‘대안학교’와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정부 부처별 지원 현황 및 문제점은 본 정책 자료집 “3)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단락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2) 탈북청소년 학습능력 실태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도 「청소년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는데, 탈북청소년의 생활환경 및 학력 실태, 학교생활, 희망 지원정책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에 발간된 「2012 탈북청소년 실태보고서」는 탈북청소년 1,673명(전체 탈북청소년의 43.8%, 제 3국 출생 청소년 629명 포함)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15일부터 동년 9월 15일까지 3개월 간 진행된 조사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조사 방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 전문상담사 91명(전체 인원 102명)이 북한이탈주민 각 세대를 방문하여 대면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본 단락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실태결과의 일부를 서술하면서 탈북청소년의 학습 수준 및 학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국내 거주 탈북청소년의 가족 유형

입국 이후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의 가족 유형은 ▲한부모 가정 ▲양부모 가정 ▲무연고 가정 ▲조손가정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전체의 53.5%가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데 부모가 생업 전선에 있어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양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탈북청소년이 전체의 36.7%로 조사되었으나,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비율이 40.8%(일반 국민 2.7%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들 가정 역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녀의 양육과 교육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탈북청소년을 전담하고 있는 대안학교나 방과후 공부방이 있으나, 이들 두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27%(2,254명 중 609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3%에 해당하는 1,600여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학교와 방과후 공부방의 운영을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기] 국내 거주 탈북청소년 가족 유형

유형 (순위 순)	한부모 가정	양부모 가정	혼자서 생활	조손가정	기타 (친척 등과)
비율 (인원)	53.5% (559명)	36.7% (383명)	3.4% (36명)	2.4% (25명)	3.9% (41명)

* 조사 대상 탈북청소년 중 응답자 1,044명 기준

② 친한 친구 여부 및 상담자 유형

탈북청소년 10명 가운데 8명은 ‘속마음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의 ‘친한 남한 친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한 탈북청소년 친구’ 여부에 관해서는 조사대상 10명 가운데 6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당 수치를 반대로 적용할 경우 탈북청소년 10명 가운데 2 ~ 4명은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래 친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내 입국 이후 갑작스레 바뀐 체제·생활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고민을 털어놓는 상담자의 수치와도 연관되는데 조사 대상 탈북청소년 중 가장 많은 66.6%가 ‘부모님’이 자신의 ‘고민 상담자’라고 응답했다. 이 외에 학교선생님(22.6%)이나 혼자서 고민(14.9%)한다고 응답한 탈북청소년도 있었는데 조사 대상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는 ‘학교에서 만난 남한 친구(14.3%)’가 차지했다. 이는 다시 말해 자신에게 어떠한 고민이 생겼을 경우 또래 친구집단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사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를 종합 검토할 경우 탈북 청소년들이 일반 학생들과 비교할 때 또래 집단에게 다가가거나 마음을 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 나이에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 능력 저하의 문제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학교나 직장 등에서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전담코디네이터’ 강사를 운용해 탈북청소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파견학교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며 탈북청소년을 담당하는데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담코디네이터의 수는 2013년 기준 15명에 불과하여 전체 탈북청소년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15명의 전담코디네이터가 담당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의 수는 486명으로 전체 2,254명의 21.6%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이들의 혜택을 받고 있는 탈북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담코디네이터가 탈북청소년의 보다 원활한 학교적응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해당 사업의 확대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8] 국내 거주 탈북청소년 가족 유형(2013년 8월말 기준)

시도	학교명	전담 코디네이터	소재지	탈북학생 현인원	지원결정액 (천원)
서울	서울가양초등학교	김○○	서울 강서구	28	22,000
	서울거원초등학교	이○○	서울 송파구	7	22,000
	서울장수초등학교	이○○	서울 양천구	23	22,000
	서울용동초등학교	최○○	서울 노원구	30	22,000
	경서중학교	최○○	서울 강서구	19	22,000
충남	온양초등학교	김○○	충남 아산시	12	22,000
인천	인천장도초등학교	강○○	인천 남동구	56	22,000
	인천동방초등학교	최○○	인천 남동구	33	22,000
	인천송천초등학교	김○○	인천 남동구	16	22,000
	인천논현중학교	최○○	인천 남동구	24	22,000
대구	대구월곡초등학교	시○○	대구 달서구	11	22,000
경기	삼죽초등학교	배○○ 박○○	경기 안성시	75*	44,000
	한겨레고등학교	김○○	경기 안성시	129	22,000
경남	자여초등학교	김○○	경남 창원시	23	22,000
합 계				486	330,000

* 삼죽초등학교의 경우 매월 탈북학생 변동 발생

③ 교육 및 학교생활

탈북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로 ‘학교수업 따라가기(52.6%)’를 꼽았다. 이는 ‘문화·언어적응(13.5%)’, ‘친구 관계(8.5%)’, ‘선생님들과의 관계(2.2%)’가 어렵다고 응답한 인원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로 탈북청소년이 학업 수행 과정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9]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탈북청소년 973명 조사)

항목 (순위 순)	학교 수업 따라가기	문화· 언어적응	친구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비율 (인원)	52.6% (512명)	13.5% (131명)	8.5% (83명)	2.2% (21명)

다시 말해 ‘학습 능력’이 일반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인데, 가장 큰 원인은 기초학력에서 이미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인데 몇몇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수업이 끝난 후 공부하는 장소’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의 방과후 학교(36.7%) ▲집(23.8%) ▲학원(17%) ▲복지관의 방과 후 교실(14.6%) 순으로 응답하였다. 일반 학생의 대부분이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대다수의 탈북청소년은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서 자습(자율적인

학습)을 하거나 집에서 홀로 공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0] 탈북청소년, 수업이 끝난 후 공부하는 장소

항목 (순위 순)	학교의 방과후 학교	집	학원	복지관의 방과후 교실
비율 (인원)	36.7% (357명)	23.8% (232명)	17% (165명)	14.6% (142명)

또한 ‘사교육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6.8%에 불과해 일반 남한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인 71.7%⁶⁾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달 평균 지불하는 사교육 비용이 ‘11 ~ 30만원’ 수준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의 52.8%에 해당하였다.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 취업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137.7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평균 20만원으로 상정할 경우 한 가정에서 월평균 임금의 14.5%를 사교육비로 지출한다고 볼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비율이 높고 월평균 임금이 낮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사교육을 하는 것이 힘들 것임을 알 수 있다.

탈북학생들은 자신들에게 ‘향후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과 ‘학업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향후 취득을 희망하는 학력’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87.2%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4년제 대학교 : 69.0%, 대학원 :

6) 통계청, 「2011 사교육비 조사」(2012년 발표)

18.2%)’을 희망한다고 답했는데 생활환경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교육을 통해 이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에 원활하게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11] 탈북청소년 학생에게 향후 필요한 지원(복수 응답 가능)

유형 (순위 순)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학습 및 학업(공부) 지원	진로(진학 및 취업) 상담지원	친구 교류 등 적응 지원	의료지원
비율 (인원)	68.1% (663명)	67.8% (660명)	31.6% (307명)	6.5% (63명)	4.3% (42명)

본 단락에서 나열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대다수의 탈북청소년들이 원활한 학업능력 및 학습 환경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로서는 정부의 생활지원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 없는 상황하에서 자녀세대인 탈북청소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고학력·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장래 더 나은 삶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탈북청소년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는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 증대될 필요성이 있다.

3)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교육지원 사업을 포함한 탈북청소년 전반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⁷⁾ 2012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전체 예산 258억 7,300만원 가운데 ‘청소년 관련 사업’의 예산 총액은 35억 6,2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13.8% 규모로 세부 예산 명목으로는 ▲무연고 청소년 등 그룹홈 지원 사업(6억 3,700만원) ▲청소년 교육·장학사업(27억 700만원) ▲청소년 미래리더 육성 사업(2억 1,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청소년 교육·장학사업’이 탈북청소년의 학력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사업의 예산 명목은 세부적으로 ▲탈북청소년 장학사업⁸⁾(5억 2,700만원) ▲화상영어교육 지원 사업(1억 1,600만원) ▲대안학교 지원(7억 1,600만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12억 4,800만원) ▲학습지 지원(1억원)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외에 교육부(KEDI의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등)를 비롯한 안전행정부(통일학교 캠프 등), 여성가족부(탈북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사업 등) 등에서 부처별로 특화된 탈북청소년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규모가 재단에 비해 크지 않고 재단과의 사업 중복 우려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8) 해당 사업은 탈북청소년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인원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탈북청소년은 현행법상 일반 교과과정의 학비가 면제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제1항 : ①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②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국립·공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면제한다.

[표1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청소년 교육·장학' 사업 예산(2012)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주요 집행내역
장학사업	527	527	○ 장학사업 503 ○ 해외연수 지원 24
화상영어교육 지원	116	111	○ 위탁교육비 100 ○ 화상영어캠프 운영 9 ○ 선정업체 심사 및 사업관리 2
대안학교 지원	716	715	○ 사업 교부금 : 706 ○ 평가 및 컨설팅 : 7 ○ 간담회, 현장실사 등 사업관리 : 2
방과후공부방 지원	1,248	1,235	○ 사업 교부금 : 1,049 ○ 신규(공동운영) 임차 : 166 ○ 평가 및 컨설팅 : 13 ○ 간담회 등 사업관리 : 7
학습지원	100	84	○ 위탁교육비 82 ○ 선정업체 심사 및 사업관리 2
합 계	2,707	2,672	

상기 예산 중 8곳의 대안학교별 지원예산은 다음 도표와 같다.

[표1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대안학교별 지원액 현황

학교명	소재지	전담 교사	학생 수	'12년 지원액	세부항목별 지원액(천원)
두리하나국제학교	서울 서초구	6	24	9,900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55,000 ○ 급식비 : 27,120 ○ 프로그램비 : 16,880
우리들학교	서울 관악구	4	21	5,500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27,495 ○ 급식비 : 14,458.5 ○ 프로그램비 : 13,046.5

여명학교 (인가 대안학교)	서울 중구	16	57	1억 450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54,250 ○ 급식비 : 22,080 ○ 프로그램비 : 28,170
사단법인여명 (미인가 대안학교)	서울 중구	17	18	9,900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49,500 ○ 급식비 : 24,600 ○ 프로그램비 : 24,900
하늘꿈학교	서울 송파구	9	55	1억1천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53,700 ○ 급식비 : 38,500 ○ 프로그램비 : 17,800
드림학교	충남 천안	9	23	1억1천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63,060 ○ 급식비 : 29,808 ○ 프로그램비 : 17,132
한꿈학교	경기 의정부	9	30	1억 421만5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55,000 ○ 급식비 : 33,000 ○ 프로그램비 : 16,215
한울학교	경기 남양주	6	19	1억 60만5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51,120 ○ 급식비 : 29,160 ○ 프로그램비 : 20,325
합 계		45	232	7억 8,232만원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23일 해당 대안학교들 가운데 하나인 ‘하늘꿈학교’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아나가며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학교 시설 관계자 및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희망하는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직접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본 단락에서는 ‘하늘꿈학교’ 현장 방문의 결과로 확인된 현행 대안학교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①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하늘꿈학교’ 현장 방문 결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가운데 하나인 ‘하늘꿈학교’는 송파구 가락2동에 위치한 서울시 교육청 지정의 ‘위탁형 대안학교’이다. (사)좋은씨앗 소속으로 2003년 3월10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가운데 가장 처음 개교하여 올해 11년차를 맞이한 학교이다. 학교 내 직원은 총 28명으로 (사)좋은씨앗 소속 직원 및 탈북청소년 전담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등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강사 70여명이 보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내 학생 수는 방문 당시 기준 60명으로 무연고 학생 30명과 연고 (한부모 포함) 학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꿈학교의 운영은 정부부처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사업 지원금에 개인 및 단체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늘꿈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룹홈(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총 11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8세 미만 그룹홈이 2곳, 18세 이상 그룹홈은 9곳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총 60명의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하며 숙식을 제공받는데 교사 1인이 탈북 청소년 5 ~ 7명과 24시간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 1]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하늘꿈학교' 현장 방문(2013.09.23.)



현장 방문 결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운영 전반의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늘꿈학교 소속 교사들의 경우 일반 사회복지사에 비해 적은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었는데, 그룹홈 교사의 경우 탈북 청소년들과 24시간 숙식하며 생활함에도 그에 걸맞는 급여를 받지 못해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안학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탈북청소년의 학습능력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학력 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 이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수준별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대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는 자원봉사자 강사들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후원금을 기반으로 한 학교 운영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교사를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에서 기인한다. 자원봉사자 강사의 활용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압박에서부터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성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운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탈북청소년의 학력 증진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 원활한 교과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수준으로의 교사 수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탈북 청소년이 사회에 정착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나 학생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역할을 대안학교·위탁형 교육기관이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다. 북한 체제에 적응되어 있는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전문 인력이 오랜 기간 전담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지도해야 한다. 하늘꿈학교를 비롯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운동을 이유로 학교 기관과 교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 확충과 함께 민간차원의 후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② ‘방과후 공부방’ 사업 지원의 문제점

‘대안학교’ 이외에 ‘방과후 공부방’ 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지원하는 탈북청소년 대안교육 시설이다. 서두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는 탈북청소년은 377명으로 전체 탈북청소년 2,254명의 16.7%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에 대한 2012년도 전체 사업 지원예산은 11억 5,920만원으로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2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개소 당 평균 4,83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기관별로 최소 1,425만원에서 최대 7,248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기관에 따라 사업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❶시설을 이용하는 탈북청소년의 수와 ❷사업 신청 프로그램에 따른 적정 편성 예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1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방과후 공부방’ 지원액 현황

구 분	단체명	소재지	참여 탈북 학생 수	지원 결정액 (분할지급)
1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강서구	36	3,610만원
2	겨레얼학교	서울 양천구	30	3,230만원
3	느헤미야코리아	서울 서초구	33	3,230만원
4	반석학교	서울 강남구	9	1,425만원
5	북한이탈주민대전광역시연합회	대전 유성구	8	1,425만원
6	금강학교	서울 서초구	15	1,425만원
7	성비전교회	평택 비전동	13	1,425만원

8	에덴가족복지센터	수원 팔달구	10	1,425만원
9	자유탈북민협회	서울 강남구	16	1,425만원
10	자유터학교	서울 동작구	15	3,230만원
1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 북구	13	3,534만원
12	한누리학교	서울 양천구	30	3,230만원
13	한민족학교	서울 영등포구	13	2,250만원
14	새맘길심리치료센터	전남 여수시	15	7,248만원
15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경기도 부천시	14	7,248만원
16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12	7,248만원
17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경기 광명시	12	7,248만원
18	하늘등지 지역아동센터	인천 남동구	10	7,248만원
19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부산 해운대구	12	7,248만원
20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부산 해운대구	13	7,248만원
21	창원 YMCA	경남 창원시	15	7,248만원
22	대전생명종합사회복지관	대전 동구	9	7,248만원
23	전주YWCA	전주 완산구	18	7,248만원
24	청주YMCA	청주 흥덕구	6	7,248만원
합 계			377명	11억 592만원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는 다수의 탈북청소년들은 정규 학교 시간이 끝난 이후 별도의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부모가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자녀를 관리하지 못하기에 어린 자녀를 둔 경우 방과후 공부방에 자녀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맡기게 된다. 기관별로 평균 10 ~ 15명의 탈북 청소년이 이러한 방식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정부의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재단에서 방과후 공부방 사업의 단체를 선정할 때 ‘시설 운영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책정하는데 방과후 공부방에서 근무하는 교·강사의 인건비가 프로그램 단위로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재단에서 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강사의 인건비가 1년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1학기’, 혹은 ‘여름방학’과 같이 특정 사업 운영 기간에 맞춰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강사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탈북청소년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한다. 때문에 현행 ‘프로그램 사업’ 단위의 지원방식을 ‘시설 운영 예산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지원금이 교·강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탈북청소년 대상 기숙형 대안 교육시설’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현재 ‘대안학교’와 ‘방과후 공부방’ 두 가지 시설 유형에 국한하여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중간 형태로서 탈북청소년에게 ‘기숙사(그룹홈)’를 제공하면서 정규 학교 수업 이후에는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는 기관이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대안학교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일정한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일과시간 이후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방과후 공부방’에 비해 사업 지원예산이 더 큰 폭으로 책정된다.

그런데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금강학교’와 같이 탈북청소년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방과후 공부방’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교육지원에 따르는 운영비에 기숙사 운영비까지 필요로 하여 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기관 정의를 단순히 ‘방과후 공부방’으로 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기숙사 운영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관리하며 일과시간 이후에 교육 지도를 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대안학교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탈북청소년 교육 정책에 대한 정부·대안 교육기관의 견해

본 의원은 ‘탈북청소년 학력증진 방안 정책토론회’(2013.06.10.)와 ‘탈북청소년 학력증진 후속 정책간담회’(2013.09.30.)를 개최하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점검하였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KEDI),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학계, 대안 학교 및 방과후 공부방 시설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방면에서 정책 방향을 검토할 수 있었다. 본 단락에서는 9월 30일에 개최된 ‘탈북청소년 학력증진 후속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정리하면서 탈북청소년 교육 정책에 대한 정부와 교육 현장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 2]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후속 정책간담회(2013.09.30.)



1)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부처별 중점 검토 사항

통일부에서는 탈북청소년의 학력 증진을 위해 ▲전담코디네이터 추가 배치, ▲대안학교 지원 강화 및 ‘인가’ 유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의 지원을 통한 전문대 진학 유도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탈북청소년들이 ▲학력부진, ▲언어·문화 차이에서 느끼는 소외감, ▲재북경험·탈북과정에서의 심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통일부에서는 사회적응 과정의 이전 단계인 대안학교에서 이를 완충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담코디네이터와 전문상담사를 통해 1:1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올 6월 10일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탈북청소년의 자활·자립 방안 마련’의 해결책으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진학을 장려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착단계별 탈북청소년의 원만한 지원을 위해 부처간·관계기관간·거주지 학교와 지역 사회단체간 긴밀한 연계와 정보교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재단을 중심으로 기관별 교류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정규학교와 대안학교 간 유연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편입학 절차와 관련한 현행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탈북 청소년과의 통합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공교육기관인 일반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운영지침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에서는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초기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맞춤형 표준 교재를

개발하여 하나원 내 하나들학교에서 활용하도록 보급하였다. 현재 탈북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한 학년별 맞춤형 보충 교재의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데 EBS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교재 개발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다.

EBS에서는 올 3월 14일 진행된 탈북청소년 EBS 교재 무상 지원에 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사업 진행 방향에 관해 설명하였다. 교재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⁹⁾ 교재 수혜기관 18개소 가운데 83.3%인 15개소가 교재를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교재 콘텐츠 내용에 대하여 66.7%가 만족하고 있으며 73.3%가 학생 학업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추진 될 교재 지원에 관해서는 ▲검정고시(고검, 대검) 교재 지원 ▲난이도 낮은 교재 지원 ▲탈북청소년 수준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지원 등이 제기되었다.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EBS는 전체 탈북청소년에게 교재를 지원하는 방안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탈북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영상 강의 콘텐츠 제작 여부에 대해 검토기로 하였다.

2) 대안 교육기관의 견해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드림학교·여명학교·자유터학교 등 대안 교육 시설 관계자들의 경우 교육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설 내 탈북청소년의 학력 수준 차이가 커서 더욱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데

9) 18개소(대안학교 7개소, 방과후 공부방 11개소)의 317명 대상 EBS 교재 지원, 2013년 4월 19일 ~ 22일의 3일간 설문조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강조하였다. 탈북청소년의 실질적인 학력증진을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사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분 등을 통일부 등 정부 기관에서 증액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3월 14일에 진행된 EBS 교재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당수의 탈북청소년들이 대입을 목표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별도의 검정고시용 교재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BS와의 협약을 통해 검정고시용 교재가 지원될 경우 많은 수의 탈북청소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기에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다. 더불어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재의 수준이 탈북청소년의 학력에 비해 높은 만큼 난이도를 낮춘 교재 및 영상 강의 콘텐츠가 지원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어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재 및 영상 콘텐츠의 지원을 희망하였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의 경우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도 많고, 실제 탈북청소년 가운데 중국어 구사에 능통하지만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다고 시설 관계자들은 설명하였다. 때문에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이들의 경우 중국어로 된 한국어 교육 콘텐츠가 지원될 경우 훨씬 더 효과적인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에 대해 EBS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해당 콘텐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4.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앞서 논의된 내용들에서 종합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탈북청소년의 실질적인 학력증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지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안 교육 시설과 같은 민간·교육 단체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실행될 때 탈북청소년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통일한국을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본 단락에서는 앞서 서술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탈북청소년의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대안학교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를 개선·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탈북청소년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학력증진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들 교사들이야말로 탈북청소년들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미래통일한국의 자산으로 성장토록 교육시키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처우와 복지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개인 및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후원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탈북청소년의 학력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한다. EBS에서 무상지원하고 있는 교재나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학습용 교재들의 경우 탈북청소년들이 혼자서 활용하기에는 난이도가 높다는 것이 증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EDI와 EBS가 협약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탈북청소년을 위한 영상 강의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경우 집에서, 혹은 교육 기관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학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 영상 강의 콘텐츠에 대한 개발도 포함시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을 제외한 생활지원에 있어 북한이탈주민과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을 정의하는데 이들이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 법 자체의 개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이행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와 정규학교 간 편입학이 불가능한 문제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기관의 교육과정이 다를 경우 이유로 편입학이 불가능한 것인데 학생의 수준이 일반 정규학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기에 충분한 수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문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굶주림과 인권유린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행렬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 2012년부터 탈북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남북이 통일을 이룩하기 이전까지는 탈북민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북한 체제와 남한 사회 모두를 경험한 유일한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희망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이탈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이러한 탈북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서 기인한다. 탈북청소년들은 장차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여 통일한국의 밝은 장래를 그릴 수 있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게 될 것이다.

본 정책 자료집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실질적인 학력증진을 이끌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미약한 움직임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듯,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모여 탈북청소년이 장차 통일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염원한다.

탈북청소년 학력증진 후속 정책간담회 참고 자료 및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심윤조 의원 활동 보고서



■ 별첨자료 목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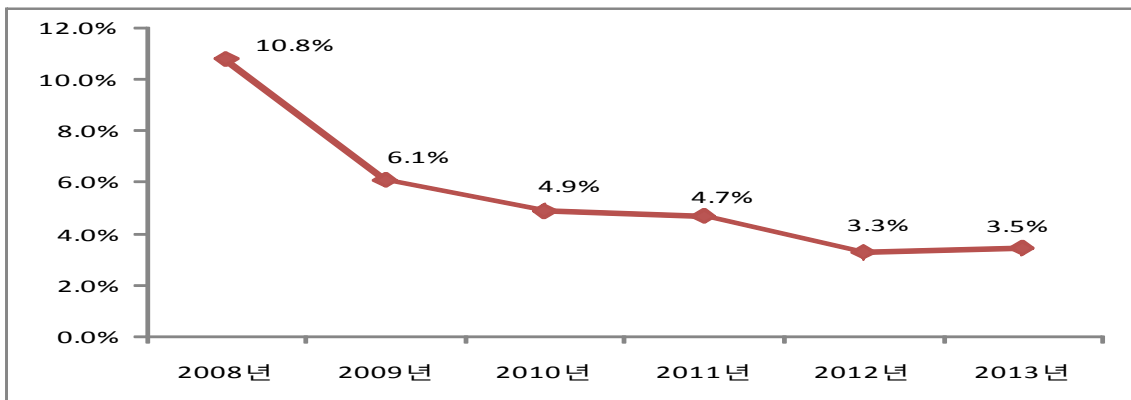
1. 통일부 - 탈북청소년 학력증진 후속 정책 간담회 참고자료
(구병삼 통일부 정착지원과장)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체계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효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연구센터팀장)
3.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KEDI) 사업 소개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교수학습개발팀장)
4. EBS 교재 활용 만족도 조사 결과
(박성호 EBS 대외협력실장, 서동원 EBS 홍보사회공헌부장)
5.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제언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
6.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심윤조 의원 활동 보고서

1. 통일부 - 탈북청소년 학력증진 후속 정책 간담회 참고자료
(구병삼 통일부 정착지원과장)

□ **탈북학생 현황(출처:교육부)**

- 총2,254명의 탈북학생중 약90%인 2,022명이 정규학교 재학 ('13.4월 기준)
 - 대안학교 재학인원은 232명, 전체 탈북학생의 약10%
-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꾸준히 감소('08년 10.8%→ '13년 3.5%)

< 년도별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 >



- 탈북학생의 학업중단 사유중 학교부적응(기초학력부족, 고연령 등)에 따른 비율은 '08년 28% → '13년 1%로 급감
- 시·도별 학업중단은 탈북민 거주 인구가 많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충북·전북·제주도는 학업중단 사례 無

참고 : '13.6월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

<기조발제 1> 탈북청소년의 학업 실태와 지원방안(한만길,KEDI)

“한국사회에서 자활자립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필요”

“1:1 맞춤형 멘토링 지도가 효과적”,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진로진학 지도 필요”

<기조발제 2> 탈북청소년 학력증진 대안 및 정책 제언(유시은,고려대)

“개인별 배경 고려한 맞춤형 지도방법 개발 필요,” “탈북학생 부모교육 중요”


“중도탈락 학생, 대안학교 재학생 등 학교밖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 필요”

□ 제도개선 방향

-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꾸준히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력부진 △언어·문화차이에서 느끼는 소외감 △재북경험·탈북과정에서의 심리 문제 등이 원만한 적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탈북청소년이 우리사회와 일반학교에서 겪게 될 애로사항을 완충하기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한겨레학교 및 대안학교(8개)가 운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디딤돌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에 통일부 및 관계부처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적응을 위해 전담코디네이터·전문상담사를 통한 1:1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강화할 예정임.
- 더불어, 지난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탈북학생의 자활·자립 및 취업 중심의 진로진학을 위해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진학을 장려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 ※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우리사회의 관용문제,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탈북청소년의 자존감 회복) 등 과도 연관된 사안임. 탈북청소년의 적응 및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음.

<붙임> 관련 제도개선(안) 1부 

〈붙임〉 관련 제도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안)
일반학교 적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교 15명 전담코디네이터 배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학생 10명~15명 이상 재학중인 학교 대상 전담코디네이터 추가 배치(10월중 교육부 수요조사 협조 예정)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 전문상담사중 심리전공(30여명) 상담사를 활용한 1:1 맞춤형 상담 실시
대안학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대안학교에 운영비 지원 (총782,320천원) * 7개 미인가, 1개 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과정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인가'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인가 학교는 탈북청소년들이 학교가 아닌 '시설'로 인식하여 제대로 된 학습지도·생활지도에 어려움 상존 - 인가시 교원 자질과 교육환경 개선 - 학생들의 검정고시에 대한 부담 해소 - 인가시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특성화고·전문대 진학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스터고 재학생 장학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 후 졸업까지 총 540만원 (연 180만원, 학기별 분할)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스터고 지속 지원 ○ 특성화고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 대상 장학금 신청시 우선 선발(14년부터) : 80만원/1년 ○ 특성화고 재학중인 탈북청소년 기숙사비(일부) 지원 검토 ○ 전문대학의 실습비 보전 관련 지원방안 검토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체계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효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연구센터팀장]

○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처로는 통일부와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탈북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민간기관들은 탈북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표> 정부 부처의 교육지원 현황

정부 부처	지원 내용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 운영 : 초등 위탁교육(삼죽초), 하나둘학교 운영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 하나센터 운영 - 한겨레학교 운영 지원 - 학력 인정 - 대학특례입학 및 장학금 지원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사 파견 및 협력학교 지원 - 한겨레학교 운영 지원 - 초중등교육기관(학교)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일반학교 편·입학 및 교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운영 - 하나원 통합문화캠프 교육지원 -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비보호) 교육지원

<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전담기관의 현황

지원전담기관	현행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생활비보조 장학금 지급 - 민간교육시설 운영 지원 :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방, 무연고탈북청소년 그룹홈 - 학업역량 지원 : 영어화상교육, 학습지 지원 -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 학생 지도 및 학부모 상담 - 진로진학 지도 : 대학입시박람회, 전문대학입시설명회 -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경진대회, 예비대학 운영 - 민간교육시설 실무자 연수 - 탈북청소년 관련 정책연구 개발 - 종합상담센터·취업지원센터 운영 : 교육·진학·취업 상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 하나돌학교 교재개발과 교육 지원 - 예비학교 운영 지원과 컨설팅 - 교재 개발 : 통일대비 표준교재, 기초학력 향상 보충교재 - 진로지도 및 역량 강화 : 진로상담매뉴얼 개발, 진로상담지원단 운영, HOPE 프로그램 운영 - 탈북학생 지도 교원 연수 - 상호이해교육 자료와 영상 개발 - 탈북학생 실태분석 및 교육지원 관련 연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 현황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부 차원의 정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설립되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원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률 제30조에 따라 동년 11월 22일 지원재단이 정식 출범하였고 2011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응, 자립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기능과 정착지원 네트워크의 거점과 가교역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원재단의 교육사업은 크게 학습 및 장학지원

사업, 민간교육시설 운영지원 사업, 탈북학생의 진로진학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탈북청소년 지원실무자 직무교육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학습 및 장학지원 사업은 탈북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생활비 보조형태의 장학금 지원, 영어회상교육과 학습지 지원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교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대안학교, 방과후 공부방, 그룹홈 지원 등 정규학교 바깥의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탈북학생의 진로진학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대학입시 박람회, 전문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진로진학 정보와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원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센터(24시간 종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들도 취업, 진학, 학업, 심리 등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규학교 지원사업으로는 탈북교사를 전담코디네이터로 선발하여 탈북학생 다수 재학학교 14개교에 배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지원실무자 교육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지역적응센터도 탈북청소년의 지역 정착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지역적응센터는 거주지 편입 초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지역학교 편·입학 정보 제공, 학비 및 장학금 정보, 학부모 상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적응센터는 탈북청소년 편입학 지원과 사후 교육관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운영 예산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탈북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안학교와 민간교육시설들은 아래와 같다. 이외에도 지원재단은 무연고 탈북청소년 그룹홈 18개를 지원하고 있다. 무연고 탈북청소년 보호시설이 과거 수도권 중심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현재 재단은 전국에 걸쳐 위탁운영 15개소, 공동운영 3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그룹홈이 탈북청소년 개개인 및 기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탈북청소년 민간대안학교 현황(2013년)

번호	학교명	개교일	대표	소재지
1	두리하나국제학교	2009.10	천기원	서울 서초구
2	우리들학교	2010.7	윤동주	서울 관악구
3	여명학교(인가)	2004.9	이홍훈	서울 중구
4	여명학교(미인가)	2001.9	강경민	서울 중구
5	하늘꿈학교(서울)	2003.3	임향자	서울 송파구
6	드림학교	2003.3	김용달	충남 천안
7	한꿈 학교	2004.4	김성원	경기 의정부
8	한울 학교	2008.3	조준상	경기 남양주

<표> 탈북청소년 방과후공부방 현황(2013년)

구분	단체명	대표	소재지
위탁운영 (13)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김장훈	서울 강서구
	겨레얼학교	최동현	서울 양천구
	느헤미야코리아	전 준	서울 서초구
	반석학교	하광민	서울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대전광역시연합회	하철진	대전 유성구
	금강학교	정팔용	서울 서초구
	성비전교회	류언근	평택 비전동
	에덴가족복지센터	장유화	수원 팔달구
	자유탈북민협회	박영학	서울 강남구
	자유터학교	김경희	서울 동작구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진선하	포항 북구
	한누리학교	김영우	서울 양천구

	한민족학교	최화순	서울 영등포구
공동운영 (11)	새맘길심리치료센터	주정옥	전남 여수시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최유호	경기도 부천시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허영철	대구 달서구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정병오	경기 광명시
	하늘등지 지역아동센터	김순원	인천 남동구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원요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정은옥	부산 해운대구
	창원 YMCA	이승창	경남 창원시
	대전생명종합사회복지관	이재현	대전 동구
	전주YWCA	이영희	전주 완산구
	청주YMCA	안덕호	청주 흥덕구

○ 탈북청소년 교육을 위한 향후 과제

첫째로, 정착단계별 탈북청소년의 원만한 정착지원을 위해 부처간, 관계기관간, 거주지 학교와 지역 사회단체간 긴밀한 연계와 정보교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담당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재단이 탈북청소년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정규학교 대상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사업, 학교밖 민간교육시설(대안학교, 방과후공부방, 무연고그룹홈) 지원, 지역적응센터(정착도우미, 전문상담사) 사업을 일정부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체계는 탈북학생의 ‘교육권’ 또는 ‘학습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정규학교 진학을 제고하기 위한 예비학교 또는 위탁학교의 운영, 정규학교와 대안학교 간 유연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편입학

절차와 관련 법규 개정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집단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제 마련과 관련하여 특히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처간, 기관간 정책 조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가족통합적 지원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규정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재단은 대안학교, 방과후 공부방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과후 공부방에서 교육을 받는 탈북학생의 절반 정도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이다. 이러한 교육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방과후 공부방의 교육과정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탈북청소년과 제3국출생 청소년과의 통합교육과 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공교육기관인 일반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운영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탈북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학교내 탈북학생 담당 교사와 관리자, 일반학생들과 학부모들, 더 나아가서는 관련 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탈북청소년 이해 통합교육을 제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신효숙(2013.8.29.) 탈북청소년 지원체제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방안.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전문가워크숍자료집』.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KEDI) 사업 소개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교수학습개발팀장)

1.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특임센터 사업 예산

<표 1> 사업별 예산액(2013년, 5차년도)

사 업 명	예 산 액
1. 학교 적응을 위한 초기교육 내실화	540,000,000
1-1 표준(보충) 교재 개발 - 국어 6종, 수학 6종, 사회 4종, 과학 4종	540,000,000
2. 체계적·통합적 맞춤형 교육	35,500,000
2-1 사례관리 지원	22,000,000
2-2 전담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13,500,000
3. 성장·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69,000,000
3-1 HOPE 프로그램 운영 : 우수 학생 선발 및 관리	54,000,000
3-2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15,000,000
4. 탈북학생 친화적 교육기반 구축	135,500,000
4-1 교원연수 : 학교연수, 심화연수, 원격연수, 해외연수	64,500,000
4-2 교원연구회 운영/우수사례 보급	18,000,000
4-3 상호이해교육 강화, 학부모 교육	18,000,000
4-4 탈북학생 실태분석 및 관련 연구	27,000,000
4-5 관계기관 협의회(탈북학생 교육지원 포럼)	8,000,000

* 인건비, 간접비 제외

<표 2> 연도별 예산 추이

	2009년 1차년도		2010년 2차년도		2011년 3차년도		2012년 4차년도		2013년 5차년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사업비	910,000	65.47	1,105,000	66.6	1,000,000	66.2	1,525,000	74.6	900,000	75
운영비	480,000	34.53	555,000	33.4	510,000	33.8	520,000	25.4	300,000	25
총 계	1,390,000	100.00	1,660,000	100.0	1,510,000	100.0	2,045,000	100.0	1,200,000	100.0

* 인건비, 간접비 포함

2.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사업 내용(1-4차년도 성과를 중심으로)

가. 학교 적응을 위한 초기교육 내실화

□ 탈북학생 표준(보충)교재* 개발

○ 탈북학생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및 보급(4차년도)

- 초·중등 각 4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총 8종

○ 탈북학생 표준(보충)교재 개발 및 보급

- 초등 1,2학년 국어, 수학, 중학교 1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재 총 8종 개발(4차년도)
- 초등 3,4학년, 중학교 2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재 총 12종 개발 중

* 표준(보충)교재: 남북한의 학제, 교육과정, 학습내용, 교수용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작 중인 교재로서 탈북학생에게는 남한의 교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충교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남북통일 대비, 남북한 표준교재의 성격을 가짐.

□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재 개발 및 보급

- 입국 초기 하나원 하나둘학교 3개월간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 7종 (국어, 사회, 역사, 수학, 영어, 과학, 도덕) 개발 및 보급 (1~4차년도)

- 하나둘학교에서의 초기교육과 정규학교에서의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총체적 교육지원의 기틀 마련

□ 탈북학생 맞춤형 보충 교재 개발 및 보급

- 맞춤형 보충교재: 교과별 19종 개발 및 보급(1~4차년도)
 - 초등학교 8종: 국어(논술) I, II, 수학 1~6학년
 - 중학교 11종: 국어(논술), 수학, 사회, 역사 등
 - 학습방법 2종

나. 체계적·통합적 맞춤형교육 강화

□ 탈북학생 사례관리체제 구축

- 탈북학생 가정환경, 수학능력을 기록한 교육정보 구축을 통하여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하나원 하나둘학교에 본 센터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입국 초기부터 정착지 학교에 전입하기까지의 학생 사례관리를 지원함. (사례관리 소프트웨어(1종)를 개발하여 시험 운영 중)
- 희망하는 탈북학생에게 학교 밖 멘토와 결연시켜 보충 학습 및 진로 지도를 상시적으로 지원함

□ 탈북학생 밀집학교 및 밀집지역 전담코디네이터 교육

- 기초학력이 부진한 탈북학생 기초학습 지도 등,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탈북학생 밀집학교 및 밀집지역에 전담코

디네이터 (사회복지사 또는 탈북교사) 배치

- 1차년 4명, 2차년 6명, 3차년 8명, 4차년 17명 배치, 5차년도 15명 배치

-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해 각 학교 및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 및 심리적응 프로그램 진행

다. 성장·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탈북학생 진로 진학 교육

- 진로직업교육자료 개발 및 진로캠프 개최
 - 탈북청소년 지도교사용 진로진학지도서 교재 개발
 - 탈북학생 진로상담단 운영 (현재 40명 활동 중)
 - 지방거주 및 학교 밖 탈북청소년 진로캠프 실시(총 2회, 40명)

□ 탈북학생 핵심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 HOPE 프로그램 운영

- 우수탈북학생 발굴 및 역량강화를 통한 통일시대 대비 글로벌 핵심 인재풀 육성
 - 1차년 탈북 중학생 16명, 2차년 34명, 3차년 13명 서울대 리더십 캠프 (1박2일) 수료
 - 4차년 우수탈북학생 17명 선발, 1:1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13년도(5차년) : 우수탈북학생 16명 선발, 1:1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라. 탈북학생 친화적 교육기반 구축

□ 탈북학생 지도 교원 연수

- 탈북학생 재학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탈북학생 수용역량 강화,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진행하여 탈북학생 우수 지도사례를 현장에 보급함.

- 집합연수 : 1차년 교원 647명, 2차년 368명, 3차년 470명, 4차년 651명 수료
- 원격연수 : 3차년 교원 54명, 4차년 3,745명 수료

□ 탈북교사 연수를 통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인력 양성

- 전직 교사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및 초등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함

- 수료 후 자립자활 능력 향상 및 취업률 증가
- 탈북학생 1:1 방문지도 활동을 통해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기초학습능력 증진에 기여함
- 1차년 연수 60시간, 22명(1기) 수료. 학생 16명 방문지도
- 2차년 연수 90시간, 22명(1~2기) 수료. 학생 16명 방문지도
- 3차년 연수 60시간, 56명(1~3기) 수료. 학생 26명 방문지도
- 4차년 연수 60시간, 64명(1~4기) 수료. 학생 21명 방문지도

□ 탈북학부모 교육지원

- 탈북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학교 적응은 학부모의 적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학부모 교육을 진행

- 초등·중등 탈북학생 학부모용 자료를 개발, 학부모교육이 가능한 탈북학생 재학 학교, 하나센터 등 유관 기관을 통해 배포함

□ 남북한 학생 상호이해교육

-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자료를 개발하여, 교사 및 관리자 연수 자료로 활용하고, 학교의 수업 시간에 보조 자료로 활용함.
 - 1차년 : 교육용 동영상 2종, 남북문화 이해 자료 1종
 - 2차년 : 교육용 동영상 1종
 - 3차년 : 남북한상호이해 애니메이션 2종, 수업지도안 8종
 - 4차년 : EBS 방송 프로그램 1종, 상호이해교육 동영상 1종
상호이해 UCC공모전 수상작 9종

□ 탈북학생 교육 지원 연계망 구축

- 전용 웹사이트 www.hub4u.or.kr 통해 탈북주민,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을 안내하고 탈북청소년 교육 관련 자료 및 연구물 제공
- 상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탈북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교육 관련 정보 제공함

4. EBS 교재 활용 만족도 조사 결과

[박성호 EBS 대외협력실장, 서동원 EBS 홍보사회공헌부장]

조사대상 : 교재 수혜기관 18개소의 교사 18명(대안학교 7개소, 방과후공부방 11개소)

조사기간 : 2013. 4.19~4.22

1. 교재 활용 여부

- 83.3% 교재 활용 중

: 조사대상 18개소 중 15개소(83.3%)에서 EBS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3개 기관의 사유는 '탈북학생의 수준에 비해 교재 내용이 어려워서' 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하지 않고 교사가 수업 참고용으로 교사가 활용한다고 응답함. 고등학교 과정보다는 초등과 중등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았음.

2. 교재 콘텐츠 내용 만족여부

- 66.7% 만족한다고 응답

: 교재를 활용한 15개소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재 콘텐츠 내용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기관의 66.7%가 '매우 만족'(6개소) 또는 '만족'(4개소)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26.7%(4개소), 6.6%(1개소)로 조사됨. '보통'과 '불만족'에 응답한 사유는 '대안학교의 경우 검정고시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어 수능 및 일반교과과정으로 발송된 교재가 너무 자세하고 수준이 높다', '탈북청소년들은 기초학력이 미흡하여 기초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쉬운 교재가 더 적합하다' 등이었음.

3. 학생 학업향상 도움 여부

- 73.3% 향상되었다고 응답

: 본 교재가 학생의 학업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73.3%에 해당하

는 11개 기관이 ‘매우 만족’(6개소) 또는 ‘만족’(5개소)한다고 응답하였고 4개소가 ‘보통’과 ‘불만족’ 등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본 질문은 대상기관이 교재를 받은 시기(3월말)와 조사 시기(4월 중순이후) 간의 거리가 근접하여 학업향상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교재 사용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짜임새있고 자세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교재활용이 용이하고 학생들의 학습이해도가 높아진 점 등을 들어 학업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4. EBS 교재 및 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

- 대안학교 : 검정고시용(고검, 대검) 교재 지원 필요
-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교재가 적합
- EBS 교재 중 ‘국,영,수’ 말고도 ‘사회, 도덕, 기술, 가정, 논술’ 등 부과목 지원
- EBS 홈페이지 유료 교육콘텐츠 사용 지원 요망
- 교사용 교재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 및 교구 지원 필요

5.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제언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

I. 북한이탈청소년의 교육관련 문제점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북한의 사회·정치·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적응의 어려움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의 특성으로 인하여 남한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는 것은 북한이탈청소년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 통합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남한에 학교에 입학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어른들에 대한 취업 지원도 다양한 직업 교육을 지원하며 취업 후에도 2년간의 지원을 통하여 인큐베이팅 과정을 두어 남한 사회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어린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하나원의 예비학교(3개월)의 교육을 이수한 후 남한의 일반학교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적응과정을 어린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일반사회에서 알아서 서바이벌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남한에 입국한 초기 적응 과정에는 탈북과 남한 입국과정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하고, 남북한의 체제의 극간을 매우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 편입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상처를 얻은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거나, 적응이 어려운 고등학교 과정은 아예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정착하도록 지원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II.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의 문제점

1. 하나원 교육지원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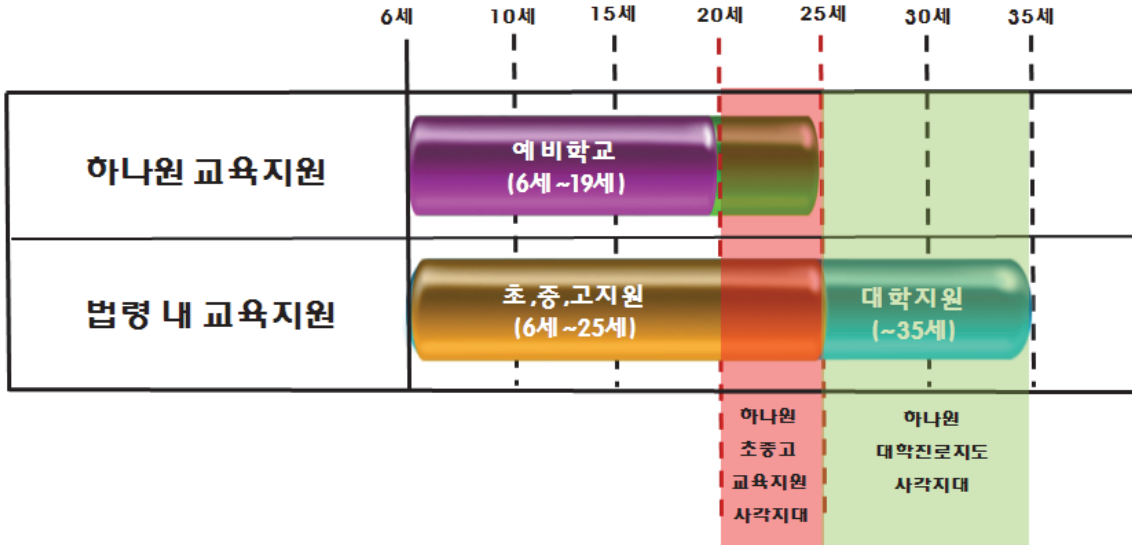
-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동반입국 비보호 자녀들은 정부 합동 조사기간(3-6개월)을 거친 후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3개월)을 실시함.

- 하나원에서는 만 6세-19세 이하 청소년들(북한이탈청소년, 비보호 청소년)을 위하여 '예비학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 2)를 설치하여 학력인정(비보호 청소년 제외) 및 일반 학교 진학을 지원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예비학교에서 교육을 지원하며 학력인정까지 해 주고 있으나 함께 공부하였던 비보호 청소년들에게는 학력인정을 하지 않음. 따라서 비보호 청소년들 특히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 입국한 학생들의 학력인정 문제가 대두됨. 또한 언어의 문제로 인해 검정고시에 장애가 상당함.

- 예비학교의 입학 연령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47조의 2)에서 “6세에서 19세 까지”로 제한하여 동시행령의 ”제 45조의 초·중등학교 교육지원 연령을 만 25세까지로 한 부분과 상충되어 20세 이상~25세 미만의 학생들에게는 교육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 시행령에서 (제 45조)에서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학 진학 시 교육지원을 하기로 하였기에 이들에 대한 하나원에서의 진로 지도와 안내를 강화하여야 함.



2. 정착지 교육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

- 초·중등과정의 북한이탈청소년들 중에는 나이가 어리고 부모의 지지가 상당하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일반학교에서 적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나이가 많고 무연고나 결손가정의 자녀들,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편입될 경우 입시위주의 남한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하며 모방탈선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북한이탈청소년 중 일반학교에 바로 편입하여도 무방한 학생들과 전환기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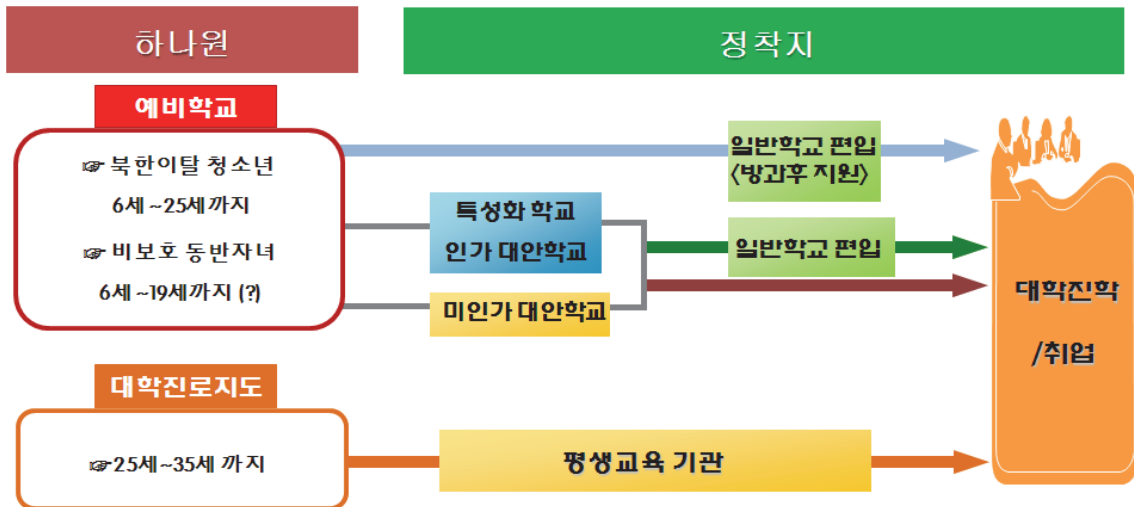
-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디딤돌 학교의 개념(체제 전환기 교육과정)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화하여야 함.

- 무연고 학생과 가족 재결합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보호와 휴식을 위한 생활공간(기숙시설)을 마련해야 함. 또한 심신의 치유와 건강관리

를 학교 내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6조)에 따라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및 기숙사사용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존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짐을 지우는 격임. 따라서 일반 학생들보다 배려와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여 민-관 협력하도록 함.

Ⅲ.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방향



6.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심윤조 의원 활동 보고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EBS · 국회의원 심윤조 3자 MOU 체결(2012.10.30.)

○ 개요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심윤조 의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EBS 3자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한 탈북청소년 학력신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추진 배경

: 국내 거주하고 있는 2,200여명의 탈북청소년들에게 교육 지원의 혜택을 늘려 학력을 신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계기 마련

○ 업무협약 추진 세부 방안

- △ 탈북청소년 학력신장을 위한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제작 편의 제공
- △ 교재 및 교육콘텐츠 지원
- △ 정책개발 및 예산 확보
- △ 홍보 및 공동연구 등에 상호 교류 협력 추진

■ 탈북청소년 EBS 교재 지원(2013.03.14.)

○ 개요

: 새학기를 맞아 MOU 체결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 방과후 공부방과 대안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탈북청소년 317명을 대상으로 학년별 교재 각 1세트씩 EBS로부터 배송

○ 탈북청소년 대상 EBS 교재 지원 내용 및 목록

구분	초	중	고	○ 지원 EBS 교재 목록 ○ - 초 : 내공남남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권 1세트 - 중 : TV중학 (국어, 영어, 수학) 3권 1세트 - 고 1 : 올림포스 (영어 2종, 수학 2종) 4권 1세트 고 2 : 포스 (국어, 영어, 수학(문과)) 3권 1세트 고 3 : 수능특강 (국어(B), 영어(B), 수학(A)) 3권 1세트
방과후공부방 (11)	98	14	6	
대안교육시설 (7)	42	41	116	
인원 합계	140	55	122	
총 317명				

■ 탈북청소년 학력증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2013.06.10.)

○ 개요

: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심윤조 의원 주최 “통일한국의 자산,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 추진 배경

: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통일한국의 자산이 되어줄 탈북청소년들의 학업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을 모색

○ 토론회 주요 내용

- △ 탈북청소년의 개인별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방법의 개발
- △ 탈북청소년 전용 교육교재 및 자료 개발
- △ 학부모 교육 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 대안학교 등 일반학교 밖의 탈북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원·관리
- △ 비보호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 △ 탈북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특성화교육 및 진로·진학 교육
-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초·중등 편입학 및 학년제 개선 문제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하늘꿈학교’ 현장 방문(2013.09.23.)

○ 개요

: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지원하는 위탁형 대안학교 ‘하늘꿈학교’(사단법인 좋은씨앗 소속)의 현장 방문 진행

○ 현장 방문 배경

: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에서 사회적응과 교육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학교 시설 관계자 및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희망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 현장 방문 주요 내용

- △ 탈북청소년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정책 지원 필요성 확인
- △ 탈북청소년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장기적인 육성·지원 정책 마련
- △ 우리 사회 속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취업·정착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위해 대안 교육 시설의 확충·지원

■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2013.09.23.)

○ 개요

: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만 5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법안 주요 내용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을 '방송통신기본발전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기금의 수혜 대상자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재원을 활용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 이를 개선하고자 기금 운영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키도록 범위를 확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방송통신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복권기금' 운용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기금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 복권기금 수혜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켜 개정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복권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